

제3세계에서의 담배관련 사망이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재 연간 260만명에서 1천 2백만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한상태 박사가 이야기 한 불길한 예언이다.

한박사는 이러한 사망자 수의 증가는 최근 흡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에서 말했다.

금연운동의 영향은 매우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곳은 주로 선진국들에서 였다.

반면에 개도국에서는 관측활동이 성행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담배소비율로 알려진 나라들이 지금은 주요 담배회사들의 공격적 관측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폐암유병률이 1963년에서 1975년 사이에 10만명당 12명에서 25명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박사는 말했다.

서태평양지역의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의 흡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좀더 선진화된 국가들에서는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아주 대략적으로 말해 우리는 선진국에서의 흡연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는 2%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새 흡연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들이 19세에 도달하기 전에 흡

연을 시작한다.

16세~19세 사이의 호주인들의 약29%가 흡연자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20세이하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15세~17세 사이에서 흡연율이 20%나 된다.

“필리핀에서는 11~16세 소년의 17%가 흡연을 하고 있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체 남학생의 40%와 여학생의 19%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박사는 말했다.

중국은 흡연으로 인한 죽음과 질병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또 하나의 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동시에 세계 최대의 담배소비국인데 약2억5천만의 흡연자가 25mg이상의 높은 타르함량을 가진 담배를 피워내고 있다. 중국의 흡연율은 남성인구의 61%이고 남자의사의 56%가 담배를 피운다고 중국대표인 웅 징차이 교수가 제7차 담배와 건강 세계대회에서 말했다.

중국에서의 흡연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담배생산량도 1952년~1989년 사이에 16.8배(총1.6조 개피)로 증가되었다고 중국 흡연과 건강협회의 실무부회장이 말했다.

면세점, 관광객 및 밀수를 통해 외국 담배의 수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및 질병률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폐암을 예로 들어 봅시다. 폐암은 도시지역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암유병률중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라고 징차이 교수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상하이에서 남성들 가운데 폐암사망률은 1963년 10만명당 28명에서 1980년 51.8명으로 증가되었고 여성의 폐암은 10만명당 11명에서 10만명당 18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중국 역시 여성흡연자 수의 증가라는 국제적인 추세로부터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2년의 한 조사는 남자 중학생의 19.7%가 흡연한 반면 여학생은 0.4%가 흡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8년에 이르러, 징차이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남학생의 흡연율은 36.7%로 증가된 반면 여학생의 흡연율은 2.3%로 증가되어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 남학생은 1%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3%증가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금연운동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11억의 인구중 22%가 문맹인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담배 및 담배제품에 대한 세금은 항상 정부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1989년의 경우 미화 50억달러에 달합니다”라고 징차이 교수는 말했다.

“근400년동안 흡연은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서 서로 서로에게 담배를 주고 받는 일이 사교적 행동과 우정을 표현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고위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의 흡연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는 금연운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